

‘가을잔치’ 위하여 ... ‘꼬꼬마 키스톤’ 재결합

안치홍·김선빈 ‘테이블 세터’로 1군 등록

4번 타자 나지완도 부상털고 막판 스피트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김선빈은 “떨린다”며 한숨을 쉬었고 김기태 감독은 “영광이다”고 웃었다.

김선빈이 1군으로 무대로 돌아온 27일 KIA 덕아웃의 풍경이었다. KIA는 이날 안방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 앞서 부상으로 빠졌던 나지완과 안치홍 그리고 상무에서 돌아온 김선빈을 엔트리에 등록했다.

지난 3일 안치홍이 경찰청에서 전역을 한 뒤 21일에는 김선빈이 상무에서 제대를 하면서 옛 키스톤 콤비가 다시 만났다. 하지만 이들의 재결합 장소는 챔피언스필드가 아니라 함평 챔피언스필드였다.

지난 4일 1군 복귀전을 치렀던 안치홍이 9일 우측 내전근 손상으로 재활군 신세가 된 가운데 김선빈의 등록에 신중을 기하면서 두 선수는 일단 함평에서 다시 만났다. 그리고 안치홍의 회복세 속에 김선빈의 복귀 준비도 끝나면서 ‘가을 잔치’를 위한 결정적인 순간에 두 선수가 나란히 1군으로 올라왔다.

또 유격수 강한울의 허리 부상과 2루수 서동욱의 맹장염이 겹치면서 두 사람은 1군 복귀와 함께 바로 스타팅 멤버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안치홍이 톱타자 겸 2루수, 김선빈이 2번 타자 겸 유격수로 나서게 되면서 ‘꼬꼬마 키스톤’으로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두 사람은 ‘예비역 키스톤’으로 다시 팬들 앞에 섰다.

2014년 10월3일 광주 두산전 이후 725일 만에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호흡을 맞추게 된 두 사람, ‘테이블 세터’로 나란히 선 것은 2013년 7월2일 문학 SK전 이후 처음이다. 안치홍이 톱타자로 해서 테이블 세터가 구성된 것은 처음이다.

이미 가슴 떨리는 복귀전을 치른 안치홍과 달리 김선빈은 내내 긴장한 표정으로 복귀 첫날을 준비했다.

김선빈은 “함평에서 라이브 배팅 등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야구장에 출근하는데 떨렸다.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 즐기려고 한다”고 밝혔다. 즐기겠다고는 하지만 “떨린다”는 말과 함께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면서 긴장한 모습이었다.

두 선수와 본격적으로 향해를 시작하게 된 김기태 감독은 “영광이다”며 이들의 복귀를 반겼다.

김기태 감독은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들이니까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 이제는 한 식구지만 그 전에는 팬이었다. 같이 야구를 하려니까 영광이다”며 특별한 두 선수에 대한 마음을 보였다.

김 감독은 두 선수의 군복무 기간 이들의 백업버인 3번과 8번을 임시 결번 하면서 특별한 예우를 해주기도 했다.

한편 이날 나지완도 갈비뼈 미세 골절 부상을 털어내고 4번 타자 겸 지타로 돌아오면서 KIA는 2009년 영광을 이끌었던 멤버들로 ‘가을잔치’를 향한 막판 스피트를 하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



27일 오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2016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LG 트윈스 경기에 앞서 KIA 안치홍, 김선빈이 타격훈련에 나서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김민우 “후배들 위해 온 김에 배팅볼 던졌다”

덕아웃 **T** 특·톡

▲오늘 이기고 하겠습니다 = 만루홈런을 치고도 웃지 못했던 주장 이범호였다. 이범호는 지난 23일 NC와의 원정에서 해커를 상대로 15번째 만루홈런을 터트리면서 프로데뷔 17년 만에 처음 100타점을 넘어서었다. 2009년 이후 KIA의 첫 ‘30홈런-100타점’ 주인공이 됐지만 이날 경기가 7-11 역전패로 끝나면서 이

범호는 환하게 웃지 못했다. 지난 25일 kt 원정에서도 나홀로 수비를 하면서 애를 썼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던 주장. 27일 경기 전 “팀이 계속 지면서 ‘30홈런 100타점’ 소감을 듣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범호는 “오늘 경기 이기고 인터뷰를 하겠다”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온 김에 = 올 시즌 중반 은퇴를 선언하면서 전력분석 코치로 역할을 바

꾼 김민우가 27일에는 배팅볼 투수로 변신했다. 김민우는 KIA 훈련 시간에 맞춰 유니폼을 입고 쟁겨 입고 나와 후배들에게 공을 던져주었다. 배팅볼 투수를 하느라 땀 범벅이 된 김민우는 “LG 전력 분석을 맡아서 오늘 경기장에 왔다”며 “온 김에 공을 던졌다”고 웃었다.

▲뭘 수 있을 때 뛰어 보라니까 뛰더라 = 김기태 감독을 웃게 한 막내

최원준의 기특한 플레이였다. 최원준은 지난 25일 kt 원정에서 6-8로 뒤진 9회 2사 2루에서 대타로 나와 귀한 안타를 때리며 추가 득점의 발판을 놓았다. 이후 상대 포수 실책으로 2루까지 달렸던 최원준은 3루 도루까지 성공하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아침에 경기는 그대로 7-8로 끝났지만 인상적인 활약을 한 막내. 김 감독은 이에 대해 “뭘 수 있을 때 뛰어 보라니까 뛰더라”며 웃으면서 “코치가 다 사인을 줘서 뛰기는 했지만 기특하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텔레토비 변신한 김현수 볼티모어 지역 방송인 ‘MASN’의 로크 쿠팡코 기자는 27일(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고 신고식 중인 볼티모어 신인들의 사진을 올렸다. 김현수(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인 텔레토비의 두비로 변신했고, 그의 통역(맨 오른쪽)은 피카추 복장을 착용했다. /로크 쿠팡코 MASN 기자 트위터=연합뉴스

김세영, LPGA 레인우드 우승 노린다

中 베이징서 주타누간과 대결 ... 디펜딩 챔피언 이미림 시즌 첫 우승 나서



김세영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뛰는 김세영(23·미래에셋)의 올해 목표는 세계랭킹 3위 이내 진입이다.

김세영은 현재 세계랭킹 5위다. 앞선 4명 가운데 2명을 제쳐야 한다.

김세영은 “계산해보니 올해 남은 대회에서 우승을 포함해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세영이 ‘세계 3강 진입 프로젝트’의 첫 발걸음을 중국에서 내디딘다.

오는 29일부터 나흘 동안 중국 베이징 파인 밸리 골프장(파73·65%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레인우드 LPGA 클래식에서 출전하는 김세영은 세계랭킹 3위 진입을 위해 꼭 필요한 우승컵을 노린다.

이 대회는 LPGA투어가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하는 아시아 시리즈 6개 대회 가운데 첫 번째다.

LPGA투어는 이 대회에 이어 대만(푸본 타이완 챔피언십), 한국(KEB 하나은행 챔피언십), 중국(블루베이 LPGA), 말레이시아(사임다비), 일본(토도 재팬 클래식)이 차례로 열린다.

김세영은 아시아 시리즈에서 1승 이상을 거두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회에서 우승하려면 김세영은 세계랭킹 2위 에리아 주타누간(태국)과 세계랭킹 4위 브룩 헨더슨(캐나다)을 넘어야

한다.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세계랭킹 3위 전인지(22·하이트진로), 세계랭킹 6위 렉시 톱코스(미국) 등은 출전하지 않는다.

코스는 김세영의 입맛에 맞는다. 파5홀이 5개다. 하지만 주타누간과 헨더슨 역시 장타를 앞세워 파5홀에서 버디를 손쉽게 잡아내기는 김세영과 다르지 않다. 화끈한 장타 대결이 예상된다.

이 대회 디펜딩 챔피언 이미림(25·NH투자증권)도 미뤄던 시즌 첫 우승을 노리고 출사표를 냈다.

이미림은 지난 2014년 이 대회에서 4라운드 역전 드라마를 쓰며 정상에 오른 바 있다.

작년에 이 대회가 중국 내부 사정으로 열리지 않아 이미림은 2년 만에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대회 코스 레코드(64타) 보유자 최나연(29·SK텔레콤)과 아직 시즌 첫 우승을 신고하지 못한 세계랭킹 9위 양희영(27·PNS), 재기를 꿈꾸는 장하나(24·비씨카드) 등이 LPGA투어 2개 대회 연속 한국 선수 우승에 도전한다.

2013년 이 대회 초대 챔피언에 올랐던 평산산(중국)을 비롯해 대거 출전하는 홈코스의 중국 선수들이 복병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박성현 ‘두마리 토끼’ 사냥 나선다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2년 연속 우승·시즌 8승 도전

고진영·양채린과 1,2라운드

박성현(23·넵스)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총상금 6억원)에서 2년 연속 우승과 시즌 8승의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총상금 6억원이 걸린 이 대회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기도 여주시 숲모로 컨트리클럽 메이플·파인 코스(파72·6573야드)에서 열린다.

이번 시즌 7승을 거둔 박성현은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다. 25일 끝난 미래에셋대우 클래식에서 2라운드까지 공동 선두를 달리다가 최종 라운드에서 6오버파를 치며 우승권에서 멀어진 박성현으로서는 이번 대회에서 다시 한 번 시즌 8승에 도전한다.

이번 시즌 선두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했을 때 한 번도 우승을 놓친 적이 없었던 박성현은 시즌 첫 역전패의 아픔을 이번 대회에서 털어내겠다는 각오다.

이번 대회에는 박성현뿐만 아니라 2010년과 2011년, 2014년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상금왕 안선주(28·오넥스코리아)와 고진영(21·넵스), 장수연(22·롯데), 김지영(20·올프유), 배선우(22·삼천리) 등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박성현은 고진영, 지난해 미래에셋대우 클래식 우승자 양채린(21·교촌F&B)과 함께 1, 2라운드를 치른다.

특히 이 대회는 호스트인 박세리(39·하나금융그룹)가 올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 박인비(28·KB금융그룹)의 금메달을 일궈낸 해에 열려 의미를 더한다.

국내 대회 사상 여자 선수의 이름을 걸고 치러지는 유일한 대회인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은 박세리가 직접 동료 선수들에게 자필 초청장을 전달하며 좋은 플레이를 보여 달라고 정중히 요청, 선수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상금 순위 50위 이내 선수들이 거의 모두 출전하게 하는 결과를 끌어내기도 했다.

또 대회장과 30분 거리에 있는 속소 이용 비용도 최대한 낮추는 등 선수들의 편의를 세심하게 배려했다.

이밖에 출전 선수들이 캐디비에 박세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도록 해서 각각의 선수에게 박세리는 어떤 의미인지, 또 박세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재미도 볼 수 있다. 대회장에는 박세리의 어린 시절부터 리우올림픽 감독에 이르기까지 사진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성현